『종교와 문화』 제45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3. pp.111-142

20세기 전반 하얼빈의 종교 지형과 문학적 표상*

방 원 일**

Ⅰ. 머리말
Ⅱ. 하얼빈 도시 형성과 이주의 역사
1. 1900년대: 러시아의 도시 건설
2. 1920년대: 중국 정체성 강화
3. 1930, 40년대: 만주국 치하의 하얼빈
Ⅲ. 하얼빈의 종교 경관
1. 러시아 정교회
2. 다양한 유럽계 이주자의 종교
3. 동아시아 종교 전통: 유교, 불교, 신토
Ⅳ. 문학에 묘사된 하얼빈 종교문화
1. 배경으로 등장하는 종교 경관
2. 러시아인의 종교 생활
3. 유대인의 삶과 종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20세기 전반의 하얼빈(哈爾濱, Harbin)은 동서 문화가 만나고 다양한 이민자가 모여 거주하던 국제도시였다. 동시대의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다종교 상황이 이곳에 조성되었고, 다양한 출신의 문학가가 이곳의 이국적인 정서를 배경으로 한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작품을 남겼다. 이 논문을 통해 하얼빈 특유의 다종교 상황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고, 하얼빈 사람들이 누린 종교 생활이 1930, 40년대 문학작품에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하얼빈은 1900년 무렵 러시아에 의해 동서를 잇는 철도 교통의 요지에 건설된 도시이다. 정교회 성당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시가지가 철도 부근에 조성되었고, '동양의 파리'로 불릴 만큼 신속하게 유럽 문화가 전달되는 동서교류의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인 1920년대에 이 지역의 지배권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인을 위한 공자 사당과 불교 사원이 건립되었다. 1932년에 일본이 만주국을 건국한 이후 이 지역 지배권은 일본에 넘어간다.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숨 가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이 지역에는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등에서 온 다양한 이주민이 정착하여 20세기 전반에 유래를 찾기 힘든 다민족, 다종교사회를 동북아시아에 형성하게 되었다.

동서문화가 공존하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한 이 도시에는 그만큼 다양한 출신의 문인(文人)들이 거쳐 갔다. 그들은 수필, 기행문, 소설을 통해 하얼빈의 이국적 풍광과 사람들을 묘사하였다. 본 논문은 문학작품에 담긴 하얼빈 묘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다종교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주민이 타지에서 어떠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주민이 모여 어떠한 종교문화를 형성하는지는 현대 종교학의 중요한 주제를 구성한다. 과거의 종교학이 정주(定住)하는 사람의 종교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면, 현재의 종교학에서는 이주(移住)하는 사람의 종교가 설명을 요구하는 더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 종교학자 트위드(Thomas Tweed)는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to cross boundaries)이 종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1] 특히 20세기 이후 초민족적 이동과 정착의 증가를 통해 이주민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조성된 다문화 상황은 종교학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2]

---

1) Thomas A. Tweed, *Crossing and Dwelling: A Theory of Relig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123-63.

2) 맬러니 나이(Malory Nye),『문화로 본 종교학』유기쁨 옮김 (서울: 논형, 2013), 269-76.

현대 종교사회학에서 복수(複數)의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미국을 모범적 모델로 하여 전개되었다.[3] 이 글에서 20세기 말 미국이 아니라 그 이전 동북아시아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최근에는 유대인 집단 거류지를 지칭하던 디아스포라 개념이 다종교 상황을 설명하는 데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4]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접근에 동조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5]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하얼빈은 지역적으로 만주에 속해 있되 만주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갖는다. 하얼빈은 이미 20세기 전반에 동서양 종교가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이주가 잦고 인구 구성의 변화가 심해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일시적인 공존이 어떠한 종교문화를 형성하였는지는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하얼빈은 동아시아에 유럽 문화를 직접 보여준 문화적 관문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유대교, 아르메니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루터교회, 이슬람, 유교, 불교 등을 한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종교 전시장이기도 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만주와 한국의 근대를 연동해서 이해하는 시야를 제시한 한석정의 『만주 모던』(2016) 이후 근대 국가 만주국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6] 종교 연구 분야에서도 만주국 종교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최봉룡, 고병철의 연구는 만주국과 조선 이주민, 그들의 민족운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7] 본 연구는 만주국 종교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두면서도, 만주국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맥락을 지닌 하얼빈 종교문화의 독특성에

---

3)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60.
4) 성해영·안연희, 「종교다원주의와 디아스포라: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전개와 디아스포라 개념의 유용성」, 『민족문화연구』 70 (2016): 164-66.
5) 박종수, 『한국 다문화사회와 종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21-26.
6) 한석정,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부산: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7) 최봉룡,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 신종교』 (파주: 태학사, 2009); 최봉룡, 「滿洲國의 宗敎政策에 對한 硏究: 國家宗敎와 國家理念의 變形을 中心으로」, 『숭실사학』 24 (2010): 257-304; 고병철, 『일제하 재만 한인의 종교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09).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하얼빈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토대로 그 다종교 상황이 표현된 종교 경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조선인들이 하얼빈의 다종교 상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문학작품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당시 하얼빈은 조선인들에게 기차로 하루면 갈 수 있는, 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고 적지 않은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졌다. 국문학에서는 2000년대 들어 만주, 하얼빈을 다룬 문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효석의 소설을 비롯하여 하얼빈에 관한 여러 작품에 관한 분석들이 축적되어 있다.[8] 다만 종교 현실과 문학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글에서 그 종교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 전반 하얼빈의 종교문화가 다소 낯설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도시 하얼빈의 역사적 배경, 하얼빈의 종교문화, 하얼빈에 관한 문학적 묘사의 순서로 전개된다. 2장에서는 하얼빈 도시 형성과 정치적 변화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서, 이 도시에 여러 민족이 거주하게 된 상황, 다층적 종교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1930년대 말 시점에서 당시 하얼빈에 존재하던 여러 종교를 건축물 중심으로 일람함으로써, 공시적으로 도시의 종교 지형을 소개할 것이다. 이것은 1930, 40년대 이곳을 방문한 동아시아 문인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4장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하얼빈의 종교문화를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 소개하고 분석할 것이다. 다루는 대상은 조선인의 하얼빈 기행문, 이효석, 유치진 등 조선 작가의 문학작품, 그리고 중국 작가 줴칭(爵青)의 작품이 될 것이다.

---

8) 만주,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한국 문학작품을 분석한 국문학 연구는 방대하다. 그중 본 연구에 참조된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천춘화,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하얼빈의 이미지와 만주 인식」, 『문학사상』 411 (2007.1.); 강혜종, 「20세기 '국제도시'의 기억: 1920~30년대 조선인의 만주기행문 속 하얼빈」, 『중국학논총』 34 (2011); 조은주,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2013); 조은주, 「공동묘지(共同墓地)로의 산책: 심연수, 유치환의 시에 재현된 하얼빈 소재 외국인 공동묘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2014); 노상래,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82 (2018); 이미림,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61 (2019); 김정남,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도시성과 사회사적 맥락」, 『현대소설연구』 83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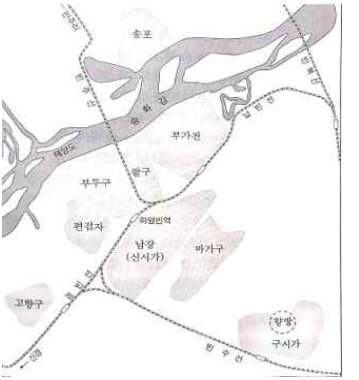
II. 하얼빈 도시 형성과 이주의 역사

하얼빈은 19세기를 전후한 시기 러시아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철도 요충지에 건설되었고, 중국과 일본으로 지배권이 이전됨에 따라 동아시아적 특징이 강화되었다. 하얼빈은 동서를 잇는 교통 요지에 건설되어 유럽 문화를 빠르게 동북아시아에 전달하는 문화적 만남의 장이 되었다.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으로 대표되는 하얼빈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19세기 전반기에 지속되었다. 한편 하얼빈이 지닌 문화적 다양성은 그곳으로 이주해온 다양한 국적과 민족의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하얼빈 거주민은 다수인 중국인을 비롯하여, 러시아인, 유대인, 튀르크인, 아르메니아인, 독일인 등이 있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가세하였다. 하얼빈의 복잡한 이주민과 종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 형성 과정과 정치적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1940년대까지 하얼빈의 지배적 세력인 러시아, 중국, 일본의 순으로 시기를 나누어 주요한 변화를 서술할 것이다.

1. 1900년대: 러시아의 도시 건설

첫째 시기는 러시아가 도시를 건설하고 주요 시가지를 형성한 1900년경부터

<그림 2> 중동철도와 하얼빈



<그림 3> 하얼빈의 핵심 지구

1920년대 초까지이다. 일본이 청일전쟁(1895년)에서 승리하고 랴오둥[遼東]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 제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을 통해 이를 청나라에 되돌려주게 하였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1896년 청나라로부터 중동철도(中東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9]의 부설권을 획득하였고, 1899년부터 철도 공사를 진행하여 1903년에 모든 구간을 완공하고 개통하였다.[10] 시베리아 남부 치타(Chita, Чита)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Владивосто́к)를 동서로 이어주는 중동철도의 중간 지점에, 훗날 남만주철도가 개설된 이후에는 남쪽 다롄[大連]시와 연결되는 철도 교통의 요지에 하얼빈이 들어섰다(그림1).[11]

하얼빈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으로, 철도 건설 전에는 송화강 유역의 작은 어촌이었다. 철도를 개설하면서 러시아는 철도 인근의 땅을 무상이나 저가로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자치권을 행사했다. 이 지역을 '철도부속지'라고 부르는데,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조계지(租界地)와 유사한 형태의 자치권을 행사하였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1897년부터 러시아인을 대규모로 유입하고 시가지를 건설하였다.[12] 1899년 말 이미 1만여 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1907년에 상주인구 4만 명과 유동 인구 10만 명, 1912년에 상주인구 6만 8천 명과 유동 인구 15만 명을 헤아리는 도시로 급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하얼빈을 구성하는 4대 핵심 지구인 구시가, 신시가, 부두구(키타이스카야), 부가전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그림2).[13] 문학작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명인 만큼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러시아 철도 건설진이 처음 도시를 건설한 곳은 역 남동쪽에 있는 향방(香坊) 지역이었다. 1899년에 러시아 정교회 성니콜라이(St. Nicholas) 성당[聖尼古拉大聖堂]을 착공한 것을 시작으로 관청

9) 이 철도의 원래 이름은 동청철도(東淸鐵道)였으나 1924년 이후 중동철도(中東鐵道)로 이름이 바뀌었다.

10) 취샤오판(曲曉范),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박우 옮김(과천: 진인진, 2016), 63-66.

11) <그림1>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hinese_Eastern_Railway-en.svg (2023.10.12. 접속)

12) 취샤오판,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70-72.

13) <그림2>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고양: 역사비평사, 2004), 277.

가, 상점가로 이루어진 임시 시가지가 조성되었다(그림3).[14] 이곳이 스타르하얼빈(舊하얼빈), 즉 구시가(舊市街)로 불리는 지구이다. 둘째로, 강 주위 습지가 매립된 이후 건설된 하얼빈역 근처에 철도관리국, 정교회 성당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이 노브 고로드, 즉 신시가(新市街)이다. 셋째로, 원래는 건설에 참여한 중국인 노동자 거주지였던 부두구(埠頭區)가 시가지에 편입되어 번화가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인이 자재를 운반하던 통로여서 키타이스카야(중국인 거리)라고 불린 길은, 지금도 중앙대가(中央大街)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상점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상점과 은행이 들어서 상업 중심지를 형성하게 된다. 넷째로, 중국인 밀집 거주 지구인 부가전(傅家甸)이 철도부속지 외곽 북동쪽에 들어섰다. 이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중국 상인들이 주도한 상업 지구가 있다.[15] 이리하여 현재까지도 하얼빈 시의 기본 구도를 이루는 4대 핵심 지구의 원형이 건설 초기에 형성되었다.[16]

<그림 4> 성니콜라이성당 그림엽서(1940년)

14) <그림3>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rbin_1940_st.nicolas.jpg (2023.10.30. 접속)

15) 김철권·백태경, 「식민도시의 공간형성과 Segregation에 관한 연구: 1898-1931년의 하얼빈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8-1 (2005): 152-55.

16)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82-283.

하얼빈은 제정 러시아의 만주 지배의 거점 도시로 건설된 도시였다. 러시아는 철도부속지를 중심으로 러시아식 도시계획에 따라 시가지를 형성했다. 정교회 성당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상징적 건물'의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성당으로는 1907년에 건설된 성소피아 성당, 슈에크포클로브 성당, 1908년에 건설된 성이베론 성당, 1912년 건설된 알렉세예프 성당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얼빈 시내는 성당 첨탑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내 건물의 리듬과 운율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건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둥, 창문, 꼭대기에 상징물과 관련된 규정을 두었다.[17] 방문자들이 도시 어느 곳에서도 성당 지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2. 1920년대: 중국 정체성 강화

하얼빈은 "동양의 모스크바",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파리의 최신 유행이 2주 후면 하얼빈에 등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유럽의 최신 문화를 동북아시아에 소개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18] 1920년대에 하얼빈에는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40여 개의 은행지점이 설립되어 동북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형성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하얼빈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한 시점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철도부속지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협약을 맺고 하얼빈에 진출을 확대하였다. 1920년대 초 하얼빈에 주재하는 외국 기업 지사는 1,809개에 달했는데, 국적별로 회사의 수는 러시아 1,336개, 일본 274개, 독일 25개, 영국 18개, 미국 33개, 프랑스 6개, 기타 144개였다.[19]

한편 1920년 전후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하얼빈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하얼빈에는 큰 변화 둘이 있었다. 첫째는 이 지역의 통제권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고, 둘째는 혁명과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백계

17) 취샤오판,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103-105.
18)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84.
19) 취샤오판,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190-94.

(白系) 러시아인이 이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인 1921년부터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철도부속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공동통치는 1926년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엔 하얼빈특별시가 설립되어 중국에 의한 통치가 1932년 일본의 만주국 건국 이전까지 짧은 기간 이어졌다. 중국이 일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종교문화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온 기간이었다. 이전 시기에 하얼빈이 러시아 도시로서 건설되었다면, 1920년대에는 중국 도시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하얼빈 최대의 불교 사찰 극락사(極樂寺, Jile Temple, Temple of Bliss)가 1923년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26년부터 1929년까지 공자묘(孔子廟)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소피아 성당과 공자묘에 의해 대표되는, 하얼빈의 이중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20]

1920년대는 러시아 내전에서 볼셰비키에 패한 백군(白軍) 쪽에 속했던 백계 러시아인의 이주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하얼빈의 백계 러시아인은 1916년 3만 4115명에서 1920년 13만 1073명으로 급속히 팽창했다.[21] 이 시기에는 유대인 이주민들도 많이 유입되었다. 하얼빈의 유대인 인구는 1930년대 초에 2만 명에 이르게 된다.[22] 하얼빈은 당시 유대인 이주사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또 일본 세력이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일본인 인구가 증가했다. 1920년대 하얼빈은 정치적으로 과도기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국적과 민족 구성원들이 형성한 다원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얼빈은 동북아시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럽과 아시아 여러 민족이 혼재하는 다원적인 도시 문화를 형성하였고, 인종적 다원성은 다종교문화의 배경이 되었다.

---

20) James Carter, “A Tale of Two Temples: Nation, Region, and Religious Architecture in Harbin, 1928-1998,”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2000): 98, 100-05.

21)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84.

22) Tony Leon, “The Jews of Harbin,” *Jewish Affairs* 64-3 (2009): 41.

3. 1930, 40년대: 만주국 치하의 하얼빈

일본 제국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을 건립하면서 하얼빈은 만주국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얼빈은 북만주경제권의 중심 도시였고 1935년에는 만주국 25개 도시 중 인구 1위를 차지하기도 한다.[23] 그러나 1935년 이후 중동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주철도 노선들이 개통되면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서구 자본이 빠져나가 경제적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하얼빈은 군사요충지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731부대를 포함한 일본군 주요 부대들이 설치되었고, 이곳에 거주하는 백계 러시아인을 첩자로 활용하여 러시아 대상 정보전을 펼치는 기지도 있었다.

연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소련인	무국적인	기타	합계
1932	3,245	5,582	345,365	21,839	26,234	2,532	404,797
1933	5,207	9,096	342,332	24,908	29,346	2,497	413,386
1934	5,631	15,655	420,922	20,801	34,178	3,339	500,526
1935	6,066	27,399	389,430	7,384	29,493	2,288	462,060
1936	6,679	32,427	388,658	6,561	27,992	2,450	464,812
1937	4,355	26,347	393,157	5,578	25,751	2,792	457,980
1938	5,056	28,238	394,540	4,457	25,366	2,549	460,206
1939	6,330	38,197	439,491	2,548	28,103	2,458	517,127
1940	8,962	51,448	549,536	1,845	31,346	2,394	645,531

<표 1> 만주국 시기 하얼빈의 민족별 인구 추이

일본의 지배 이후 인구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1930년대에 일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조선인 이주도 있었다. 반면에 러시아인(1924년 이후 소련인)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백계 러시아인과 다른 유럽계 외국인의 수는 정체되

23)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94.

었다. <표1>은 1930년대에 민족 별로 인구 증감의 추이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데,[24] 아시아인 중심의 도시로 변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945년 소련에 의해 하얼빈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1949년에 중국이 지배한 이후, 백계 러시아인과 유대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외국 이주민은 하얼빈을 떠났고 국제도시의 모습은 사라졌다.[25]

일제와 만주국이 내세운 '오족협화(五族協和)'는 만주족, 일본인, 조선족, 몽골족, 한족의 협력을 통한 국가를 주창한 초/민족 담론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하얼빈의 사정, 즉 유럽계 민족의 존재까지 고려될 수는 없었다. 1935년 조사를 요약한 <표2>에서 볼 수 있듯이,[26] 1930년대 하얼빈에 사람은 만인, 일본인, 그리고 기타국인으로 구분된다. 적지 않은 유럽인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기타국인'으로 분류된, 주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총수	459,064				
만인	388,708	일본인	29,039	기타국인	9,804
만족	14,210	내지인	23,232	소련인	6,869
한족	366,466	조선인	5,771	폴란드인	1,205
몽족	110	기타	36	기타	1,730
회족	3,742			무국적인	31,511
기타	4,180			미파악인	2

<표 2> 민족/국적별 인구(1935)

우리가 4장에서 볼 문학작품들은 대부분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일제 정책에 의해 만주를 여행한 사람도, 그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많아져 기행문과 문학작품이 많이 나왔던 시점이다. 1910년대, 1920년대와는 다

24) <표1>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92. 백계 러시아인은 자신의 국적을 '소련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에서 '무국적인'으로 표기된 사람은 대부분 백계 러시아인이다.

25) Thomas Lahusen, "Dr. Fu Manchu in Harbin: Cinema and Moviegoers of the 1930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2000): 144.

26) <표2>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다음 책에서 제시된 내용에서 "만인, 일본인, 기타국인"을 강조하여 변형한 것이다.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309.

른 정치적 분위기 탓에 유럽풍의 문화와 유럽인 기반의 경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지 불안함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민족이 복수의 종교문화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다문화, 다종교사회를 보여주고 있었던 시점이다. 그렇다면 1930년대, 40년대에 하얼빈의 종교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공시적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III. 하얼빈의 종교 경관

2장에서 하얼빈의 통치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도시 형성과 발전, 변화를 시대순으로 소개하였다면, 3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켜켜이 쌓여 형성된 종교문화를 1930년대 말의 시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930년대 말 하얼빈을 방문한 사람들은 산보객의 시선으로 도시의 문화를 탐방하였는데,[27] 이때 그가 접할 수 있는 종교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관광객은 주어진 코스를 따라 하얼빈을 만날 것이다(그림4).[28] 1936년부터 1943년까지 운영된 하얼빈 관광버스의 노선은 "하얼빈역-중앙사원-충령탑-이지사지묘(二志士之墓)-공자묘-로인묘지(露人墓地)-송화강"으로 구성되었다.[29] 이 코스에는 관광지와 함께 정교회 성당, 유교 관련 장소가 혼재되어 있다. 여기에 만주국에서 전사자를 위해 전국에 건립한 충혼탑도 함께 존재한다.[30] 종교적인 요소를 꽤 포함하기는 했지만, 이 관람이 하얼빈 종교문화의 전모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교문화 중에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상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문학작품을 살피기에 앞서 일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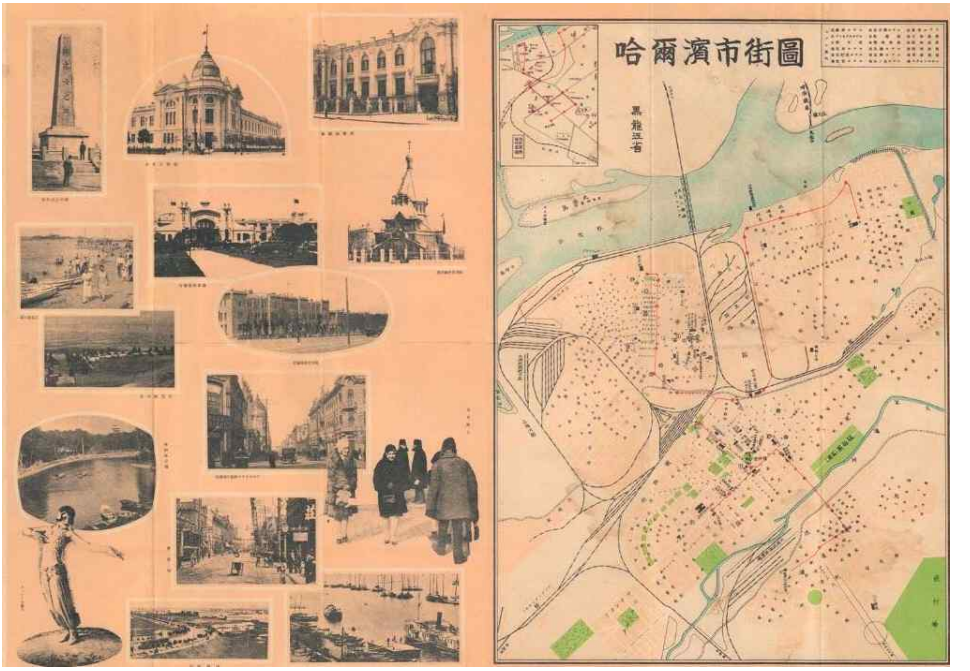
27) 이미림,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61 (2019); 조은주,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2013): 110-11.

28) <그림4>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www.geographicus.com/P/AntiqueMap/harbin-mantetsu-1933 (2023.10.12. 접속)

29) 조은주,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109.

30) 한석정, 『만주 모던』, 288.

하얼빈에 존재한 다양한 종교문화를, 관광지로 알려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망라한 종교 건축물 중심으로 나열하고자 한다. 우리는 아래의 다양한 전통들의 목록을 통해 하얼빈의 종교 지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제작한 하얼빈 관광지도(1933년)

1. 러시아 정교회

앞서 하얼빈 도시 형성 과정에서 보았듯이,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하얼빈 시가지 조성에서 출발점이자 도시 전체 경관을 아우르는 상징적 건축물이다. 1899년 향방 지역에 성니콜라이(St. Nicholas) 성당[聖尼古拉大聖堂]을 건축한 것은 러시아의 하얼빈 도시 조성의 시작을 알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60년대에 홍위병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하얼빈을 상징하는 다른 정교회 성당은 중앙대가(中央大街)에 위치한 성소피아성당으로, 1907년에 건립

되었다. 현재 개조되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관광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역사가 취샤오판에 따르면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하얼빈에 존재하는 정교회 성당은 20여 곳이다.[31] 이들은 모두 1930, 40년대 이전에 건축된 것들이다. 하얼빈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정교회 성당을 보았고, 정교회 교인의 종교 생활까지 관찰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문학작품의 묘사를 소개할 때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다양한 유럽계 이주자의 종교

하얼빈에는 러시아인 말고도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다양한 민족의 이주민이 존재했다. 그 이주민들은 각자의 종교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 종교들은 유대교, 가톨릭, 아르메니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루터교회, 이슬람 등이었다. 하얼빈의 종교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 종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인과 더불어 하얼빈의 중요한 이민자 집단은 유대인이었다. 하얼빈의 유대인 커뮤니티는 1903년에 조직되어 1963년까지 유지되었다. 1907년에 메인 시나고그가 건립되었고, 러시아 혁명 이후 다수의 유대인이 추가 유입되자 1921년에 두 번째 시나고그가 건립되었다. 1917년에는 기도소(prayer house) 한 곳이 건립되었고,[32] 유대 전통 전수의 핵심인 랍비 학교도 운영되었다. 이렇게 해서

---

31) 취샤오판이 제공하는 성당, 교회, 시나고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波斯羅夫斯卡雅教堂, 烏斯別恩斯雅教堂, 伊瓦爾斯卡雅教堂, 聖索菲亞教堂(1907년 준공), 洛夫斯卡雅教堂, 喀贊斯庫伯高羅斯基修道院(1924년 준공), 阿列科夫斯卡雅教堂(1920년 준공), 拉吉爾斯卡亞教堂(1924년 준공), 坡列德節斯基教堂, 斯庫爾別西恩斯卡亞教堂, 聖尼古拉耶夫斯卡亞教堂, 伊約爾斯卡亞教堂, 香坊聖尼古拉教堂, 聖阿列克謝夫斯卡亞教堂, 伊斯卡亞教堂(1924년 준공), 普列沃拉斯卡亞教堂(1920년 준공), 伊諾包果斯洛夫卡亞教堂, 聖伯利索夫斯亞教堂(1923년 준공), 聖彼得羅教堂, 耶萬格羅基督福音堂(1915년 준공), 基督教路德信義會(1914년 준공), 猶太總教堂(1915년 준공), 猶太教新堂, 聖約慕法堂. 취샤오판,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183.

32) Elena Chernolutskaya, “Religious Communities in Harbin and Ethnic Identity of Russian Emigré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2000): 81-82.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하얼빈에 형성되었고, 이는 20세기 유대인 이주 역사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1963년에 공동체가 모두 하얼빈을 떠났고, 1985년에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해서 현재 하얼빈에는 유대인이 없다. 그러나 700여 기의 묘가 있는 유대인 공동묘지와 당대의 건물들이 남아서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33)]

폴란드인은 러시아인과 함께 중동철도 건설에 참여한, 하얼빈 초기부터 중요한 민족 집단이었다. 철도기술자,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인력이 도시 건설 초기에 참여하였다.[34)] 폴란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종교는 가톨릭이었다. 1901년에 가톨릭 공동체가, 1903년에 자선 모임이 조직되었다. 1909년에 네오고딕 양식의 성스타니슬라우스(St. Stanislas) 성당이 건립되었고, 1925년에 두 번째로 성요셉 성당이 건립되었다. 가톨릭 교인의 대부분은 폴란드인이었지만, 리투아니아인, 라트비아인, 독일인, 헝가리인, 만주인, 일본인, 그리고 소수의 한국인 등 다른 이주민 집단도 참여하였다. 가톨릭 미사의 언어는 라틴어이지만, 축일에 진행된 부대적인 행사에서는 주로 폴란드어가 사용되었고 참여 집단에 따라 다른 언어도 사용되었다. 프리스탄에 있는 성요셉성당에서는 한국어 봉독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어, 소수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35)]

아르메니아인도 정교회를 중심으로 민족 생활을 영위하였다. 1918년까지는 기도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였고, 이후에는 1918년 착공하여 1923년 완공된 성그레고리오성당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하얼빈의 아르메니아 정교회(현재의 조지아 정교회) 성당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성당이었다. 그래서 이 성당이 만주, 중국, 일본에 거주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영적 구심적 역할을 했다.[36)]

---

33) Tony Leon, “The Jews of Harbin,” *Jewish Affairs* 64-3 (2009): 42; Dan Ben-Canaan, *Jewish Footprints in Harbin: Concise Historical Notes* (Harbin: Harbin Jewish Culture and Tourism Association, 2018), 68.

34) Pavel E. Ratmanov, Lotysz, Slawomir, & Czajewski, Jerzy, “Polish Physicians in Harb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History of Medicine* 6-2 (2019): 71-74.

35) Chernolutskaya, “Religious Communities in Harbin and Ethnic Identity of Russian Emigrés,” 86-87.

36) Chernolutskaya, “Religious Communities in Harbin and Ethnic Identity of Russian

우크라이나 공동체는 처음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일원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에 민족적 구분이 종교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 이후 민족주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교회가 분리되었다. 1921년 본국의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가 발족하여 1936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얼빈에서도 1922년에 정교회 독립을 선언하고 성모보호교회(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를 건설하였다. 이 교회는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공동체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다만 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은 1905년 철도노동자를 위해 계획되었던 공동묘지 건설을 진척해서 1931년에 완공한 것이다. 이 묘지와 교회는 뒤에서 볼 유치환의 시에 등장한다.

독일인과 에스토니아인, 라트비아인은 루터교회에 출석했다. 루터교회는 1916년에 2층짜리 고딕양식으로 건축되었다. 1930년대 러시아에서 온 이주자들이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1942년에는 600명 정도의 교인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루터교회는 민족 위주의 공동체보다는 종파적 교회로서 기능하였다.

하얼빈에는 이슬람을 믿는 타타르인 공동체도 존재했다. 이들은 1904년에 이슬람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처음에는 목조 건물에서 시작하였으나, 1907년과 1922년 건물을 지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드디어 1937년에 새로운 하얼빈 모스크가 완공되어 아랍어로 예배드렸다. 이상으로 열거하기에도 숨 가쁠 정도로 다양한 유럽계 이주민 집단의 종교를 소개하였다.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다양한 종파의 기독교가 하얼빈에 자기 건물을 세워 복합적인 종교 경관을 형성하였다. 현재도 이 건물들은 하얼빈시에 존재하면서 과거의 다종교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3. 동아시아 종교 전통: 유교, 불교, 신토

하얼빈은 유럽적 특징이 강조되는 도시이지만 이 도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거주민은 언제나 중국인이었다. 한족, 만주족, 몽고족, 일본인, 조선인 등 아시아

Emigrés," 84-85.

사람들이 줄곧 수적인 다수를 점하였으며, 수적 우세는 1940년대에 압도적으로 강화되었다. 동아시아 종교는 처음부터 공존하였지만, 큰 건축물로 표면화된 것은 정치적 환경이 변한 1920년대부터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 하얼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규모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1923년에 하얼빈 최대의 불교 사찰 극락사(極樂寺)가, 1929년에 공자묘(孔子廟)가 건립되었다. 두 건물은 하얼빈 관광코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명소가 되어 하얼빈이 동서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방문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켰다. 조선인의 기행문과 문학작품에도 자주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만주국 지배를 받으면서 하얼빈은 만주국 종교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만주국은 복합민족국가로서 다양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공자의 도(道)에 의한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예교(禮敎), 즉 유교를 국교(國敎)로 표방했다. 국가적으로 문묘를 정비하여 각종 국가 의례를 성대히 행하였기에, 하얼빈에 이미 건축한 공자묘는 크게 활용되었다.[37] 만주국이라는 환경에서 공자묘의 중요성은 증가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 말부터 일본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만주국의 공식 종교는 유교에서 신토(神道)로 전환되었다.[38] 1940년부터 본격화된 이 정책이 하얼빈의 종교 경관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 때문인지 대규모의 신사가 건립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관광코스에 포함된 충령탑, 이지사묘 등의 장소가 국가적 희생을 기리는 신토 의례와 연결되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IV. 문학에 묘사된 하얼빈 종교문화

1930년대, 40년대에 만주는 조선 사회 곁에 있었다. 1930년대 부산에서는 만주의 펑톈[奉天], 신징[新京], 하얼빈으로 가는 특급열차가 바로 출발했다.[39] 이

37) 최봉룡,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 신종교』, 182-200.
38) 최봉룡, 「滿洲國의 宗敎政策에 對한 硏究」, 280-297.

효석의 장편소설『벽공무한』은 기차를 타고 경성과 하얼빈을 오가며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만주는 조선과 접해있는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1930-40년대 대중문화에서 '만주 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행가 가사에는 만주와 관련된 이국적인 지명이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하얼빈과 관련된 단어만 해도 "송화강, 북국의 겨울, 눈썰매, 빼치카, 춤추는 하얼빈, 하르빈 다방, 워카(보드카) 술, 모스도와라, 기다야스카야" 등이 있다. 권명성의「쏭화강 썰매」(1940년), 옥잠화의「하르삔 풍경」(1941년), 김해송의「할빈 다방」(1942년) 등 러시아풍 선율을 사용한 노래들이 하얼빈의 이국적 정서로 대중에게 호소하였다.[40]

지식인과 문인들의 만주와 하얼빈 방문도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에 만주에 방문하거나 거주한 사람들의 기행문이나 문학작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시기 다양한 문인에 의해 발표된 다수의 작품 중에서 하얼빈의 종교문화를 언급하거나 주목할 만한 묘사를 포함한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잘 알려진 문인으로는 이효석과 유치환의 작품이 여기 포함된다. 조선인의 묘사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주로 등장하며, 다른 종교는 간간이 등장한다. 특히 러시아 이주민에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보인 글을 따로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선에서 온 관찰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중요한 공동체,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중국인 소설가 줴칭의 글로 보충하도록 하겠다.

1. 배경으로 등장하는 종교 경관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하얼빈을 방문한 조선인의 기행문이 많이 발표되었다.[41] 이것은 일제가 정권 차원에서 독려한 만주 시찰과 만주국 홍보 때문이기도

39) 한석정,『만주 모던』, 78.
40) 한석정,『만주 모던』, 126-129.
41) 이 시기에 발표된 만주 기행문은 다음 문헌에 정리되어 있다. 소재영 엮음,『間島 流浪 40년: 중국, 시베리아 未公開 紀行文 23選』(서울: 조선일보사 출판국, 1989); 최삼룡·허경진 엮음,『만주 기행문』(파주: 보고사, 2010).

하고, 하얼빈에 대한 문인들의 문화적 동경 때문이기도 하다. 주로 남성이었던 조선 지식인들이 하얼빈에 관해 가장 인상적으로 묘사한 것은 밤 문화였다. 그들은 유흥가의 카바레를 찾아가 밤새도록 공연하는 러시아 무희들의 댄스 공연에 관해 이야기했다. 처음 접하는 러시아 여성의 스트립쇼에서 받은 충격과 경탄이 엑조티즘과 에로티즘이 뒤섞인 채 여러 글에서 반복된다.[42]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행문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이색적인 배경으로 등장한다.

최영환이 1934년에 발표한 「哈爾濱의 밤」은 카바레의 밤 문화 묘사가 주를 이루는 글이다. 그런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얼빈의 음란함은 배경이 되는 성스러움과 대조를 이룬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사원의 종소리가 들린다. 거룩한 종소리에 깨일 줄 모르는 그들의 곤한 잠이 매춘부의 방 안에 있다. 커튼 드린 창문은 대낮이 되어도 열릴 줄을 모른다."[43] 하얼빈 종교문화에 직접 관심을 둔 글은 아니지만, 성당 종소리가 일상을 지배하는 장면은 간과할 수 없는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배경으로서 하얼빈 종교문화가 나타나는 사례로 하얼빈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한국인 작가 이효석(李孝石)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효석은 1939년과 1940년 두 번의 만주 여행을 바탕으로 기행문 「대륙의 껍질」과 소설 「하얼빈」, 『벽공무한』을 저술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하얼빈이 어떻게 표상되는지는 국문학계에서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종교문화와 관련된 부분만 살피도록 하겠다.

이효석의 기행문 「대륙의 껍질」을 보면 그가 하얼빈의 특징과 30년대 말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4] "하얼빈에는 국적이 다른 많은 외국인이 잡거해 있는 탓에 그 혼잡함이 한층 컸다. 그중에는 신흥 기세와 몰락의 입김이

---

42) 조은주,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6-11, 15-18; 노상래,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에 대한 연구」, 274.

43) 최영환, 「哈爾濱의 밤」, 『신동아』 제38호 (1934.12.); 최삼룡·허경진 엮음, 『만주 기행문』, 470.

44) 「대륙의 껍질」은 이효석의 일본어 저술로 원제는 「大陸の皮」이다. 『경성일보』에 1939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연재된 글로, 2002년에 김윤식이 번역, 소개한 이후 국문학에서도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다음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효석 전집』 7 (서울: 창미사, 2003).

서로 짜여져 명암 이중주를 이루어 특수한 거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그 거리 분위기가 정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산물임을 이해하였다. “중앙사원[성니콜라이 성당], 소피스카야사원 등에는 둥글게 아름다움을 이루어 놓아도 시의 장엄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서술에는 하얼빈의 다양한 종교문화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 방문객 중 높은 수준의 관찰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로서아 묘지’와 ‘우스벤스카야[우즈베키스탄] 사원’을 언급하였고, 불교 사원 극락사가 서양 종교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중도의 극락사는 큰 규모에 단청이 아름답고 중앙사원과는 대조를 이루어 불교와 구교[정교회]와의 건축미를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았다. 절 입구의 돌계단 위에는 걸식자가 드러눕기도, 앉아있기도 하여 더럽게 흩어져 있었다. 좌우간 극락에서는 버려진 모습이었다.”

이효석의 장편소설 『벽공무한』과 단편 소설 「하얼빈」은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45] 소설에서 주인공이 조선 남성이고 상대가 되는 여성 주인공이 서양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행문만큼 노골적인 것은 아니어도, 동양이 서양을 욕망하는 뒤틀린 오리엔탈리즘, 애수와 점유가 뒤섞인 대상으로 러시아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46] 『벽공무한』에서 러시아 댄서 나아자가 조선인 주인공의 배우자가 된 반면에, 「하얼빈」에서는 독특하게도 폴란드계 여성 유우라가 파트너로 등장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폴란드 태생인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나두 여기서는 외국사람 같은 생각이 난답니다.” 그들은 이주민으로서의 동질적 정서를 나누며 하얼빈 시내 곳곳을 산책한다. 정교회 성당은 도시 분위기의 핵심을 이룬다. “대체 느릅나무와 보얀 집과 교당의 둥그런 지붕과 종소리를 제한다면 하얼빈의 운치로는 남을 것이 무엇일까.” 배경에 있던 교회는 현실을 부정하는 주인공의 공상을 되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문득 고개를 드니 먼 맞은편 나무 사리에 교회당의 둥근 지붕이 솟아보인다. 그 의젓하고 엄숙한 자태는 전지전능자의 위엄을 보이자는 것일까. 지붕 위

45)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 전집』 5 (서울: 창미사, 2003); 이효석, 「하얼빈」, 『이효석 전집』 3 (서울: 창미사, 2003).
46) 한석정, 『만주 모던』, 140.

의 높이 솟은 십자가는 회의주의자인 나를 꾸짖고 있는 것일까."[47]

하얼빈의 종교 경관은 다른 중요한 조선 문인 유치환(柳致環)의 작품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유치환은 1940년에 이주하여 1945년 6월 귀국할 때까지 만주에 거주하였다. 빈강성(濱江省)에 거주했던 그는 하얼빈을 자주 방문했다. 그가 만주에서 작성한 시는 1947년에 간행된 『생명의 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극락사소견(極樂寺所見)」과 「우크라이나 사원(寺院)」이 하얼빈의 종교 경관을 직접 묘사한다.[48] 「극락사소견」은 절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한다. 1연에서 가을 석양 빛을 배경으로 한 극락사의 푸른 지붕을 묘사한 후, 2연에서는 대웅보전 앞에 때 묻은 가사를 입은 승려를 묘사하였다.[49] 「우크라이나 사원」은 러시아 묘지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묘지와 사원을 묘사한 시이다. 그가 굳이 우크라이나인 사원과 묘지를 선택한 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50] 그는 시 앞부분에 이례적으로 붙여놓은 설명에서 묘지에 묻힌 이들이 1900년경 철도 건설, 특히 의화단의 난으로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인들임을 밝혀두었다.[51] 그는 오래된 우크라이나 성당의 적적함을 배경으로 금잔화가 쓸쓸히 피어 있는 모습을 그린다. 그리고 묘지 십자가를 묘사한다. "異國의 땅에 고이 바친 삶들이기에/十字架는 一齊이 西녘으로/꿈에도 못잊을 祖國을 向하여 눈감았나니" 조국을 향한 그리움은 마지막 연에 절절히 표현된다. "아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보리빛 먼 하늘이여" 우리는 하얼빈의 종교 경관이 이효석과 유치환의 작품에서 중요한 배경이나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

47) 이효석, 「하얼빈」, 110, 112, 115.

48) 조은주, 「공동묘지(共同墓地)로의 산책: 심연수, 유치환의 시에 재현된 하얼빈 소재 외국인 공동묘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2014): 121-24.

49) 유치환, 「極樂寺所見」, 남승우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 1 (서울: 국학자료원, 2008), 132.

50) 조은주, 「공동묘지(共同墓地)로의 산책」, 128.

51) 유치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할빈 南岡大路에 있는 이 寺院은 1903년 할빈 建設當時의 犧牲者와 拳匪事件의 籠城者를 中心으로 우크라이나人만이 모시는 절이라고 한다." 유치환, 「우크라이나 寺院」, 남승우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 1 (서울: 국학자료원, 2008), 136.

2. 러시아인의 종교 생활

조선 문인들이 하얼빈의 이주민 중 가장 관심을 가진 집단은 백계(白係) 러시아인이었다. 조선인은 고국에서 근거를 박탈당하고 타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계 러시아인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보였다. 앞서 본 이효석의 「하얼빈」에도 그러한 감정이 깔려 있다. 그래서인지 정교회 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종교 생활에 관한 기록이 기행문에 적지 않게 등장한다.

1939년에 발표된 「하얼빈의 로인(露人) 에미그란트」는 이운곡의 글인데, 그의 인적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묘사의 구체성으로 볼 때 그는 단순한 관람객이기보다는 만주에 거주했던 조선인으로 보인다. 이 글에는 성니콜라이성당에 관한 관찰이 등장한다. 그것은 유럽 문화의 대리 체험이기도 하다. "중앙사원의 천정의 목조각(木彫刻)을 가던 걸음 멈추고 나는 무심코 홀린 듯이 바라볼 때가 많다. 회화에서 보던 멀리 노르웨이풍의 사원 건축을 연상케 된다. 북구의 건축이 가지는 특성은 이런 목조각이나 도료류(塗料類)까지에도 어떤 적료(寂廖)와 중후(重厚)한 맛을 가득 품겨주는 것 같다."[52] 이운곡은 러시아 본국에서는 혁명 이후 정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만 하얼빈에서는 정교회가 건재한 상황을 적절하게 비교한 후, 그 의례 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금 러시아에선 사옥(寺屋)마다 성상(聖像)이 쫓겨난 대신 '농민의 집'이니 '노동자클럽'이니 하는 간판이 걸리어 그 가운데의 반종교(反宗敎)의 큰 봉화(烽火)를 올린다는 일대 풍자극(諷刺劇)이 연출될 때인데, 이 하얼빈의 사원의 옥상에선 교의(敎衣)를 몸에 걸친 노인이 흰수염을 더부룩이 바람에 풍기며 율동적으로 구부러진 몸을 한층 흔들며 멋들어지게 크고 작은 종을 시율(施律)의 박자에 그럴 듯이 맞추어 하루에도 몇 번씩 치며 신자들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
>
> ……
>
> 언제나 수십 개소는 되어 보임직한 교회당 내에선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도들

52) 이운곡(李雲谷), 「哈爾濱의 露人 에미그란트」, 『조광(朝光)』, 1939년 8월, 최삼룡·허경진 엮음, 『만주 기행문』, 471.

> 이 가득히 모여 취한 듯이 눈을 내리깔고 기도를 올리고 목청을 돋워 찬미가(讚美歌)를 부르고 있고, 한편 당외(堂外)에서는 거지떼가 남루한 양복에다 찢어진 모자를 썼을망정 모두 손에 찬송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당내(堂內)와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볼 때, 보는 사람도 일시 도취해버려서 별천지 온 것 같은 감격을 받을 때가 많다.53)

그가 묘사했듯이 하얼빈의 백계 러시아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거지꼴을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도 화려한 성당과 성대한 의식이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리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수호신인 점점 낡아가는 교회당이 허물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54)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분위기에 압도되어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감격"을 받았음도 숨기지 않는다. 그들 종교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에 대한 외경도 함께 존재한다.55)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지된 화려한 종교 생활에 주목한 것은 잡지 『삼천리』에 실린 다음 글에서 두드러진다. 다음은 송화강인(松花江人)이라는 필명의 저자가 하얼빈의 부활절 풍습을 보고 기록한 흥미로운 글이다. 글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부활절을 조선의 단오와 비교하여 언급한 후, 백계 러시아인이 경제력을 모아 화려한 성당을 건축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이제 기다리던 그 「復活祭」가, 지난 4월 28일, 哈爾賓에서 거행되었다. 마치 朝鮮의 「端午名節」 모양으로……이만큼한 露西亞 사람 수와 經濟力을 가지고서, 세운 절간으로는 宏壯히 크고 화려하다고 하리만치 훌륭한 寺院이 있다. 그네들은 한

53) 이운곡, 「哈爾濱의 露人 에미그란트」, 472.
54) 이운곡, 「哈爾濱의 露人 에미그란트」, 475.
55)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당시 기행문 저자 중 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가 적지 않다. 엄시우의 글은 러시아인 묘지에 있는 조선인 무덤에서 성묘하는 여인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독교 信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성경을 그리스도로 잘못 보고 허투루 천당을 꿈꾸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며 종교와의 거리를 확실히 하려 한다. 엄시우, 「秋夕墓祭參觀記」, 『만선일보』, 1940.9.28., 최삼룡·허경진 엮음, 『만주 기행문』, 500.

> 개의 寺院을 짓는데 있어서도 먼저 淨財를 모으고, 그 돈으로 可能한 範圍안에서 공사를 시작하며, 돈이 끊어지면 몇 해던지 공사를 쉬었다가, 또 제2차의 淨財를 모아 工事를 계속하여, 몇 해던지 根氣있게 하여, 畢竟은 저렇듯 훌륭한 寺院을 건축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도 安住의 地를 가지지 못하는 放浪의 民族 固有의 性味가 흘너 보인다.[56]

재원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도 다시 모금하여 화려한 성당을 짓는 이들을 보며, 저자는 성당을 통해 방랑 중에서도 안주할 곳을 만들고자 했던 이주민의 정서를 읽어낸다. 조선인 저자에게 백계 러시아인은 몰락의 대명사로 묘사되곤 한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해서는 이들의 이주 생활을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활기차게 부활절 의례를 지내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 「예수는 다시 사러나신다」라는 말을 뇌운다. 기도가 끝나면 그들은 喜色이 滿面해서 집에 도라간다. 거기서 父母 兄弟 親知들이 서로 껴안고 입을 마추며 復活祭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이때마는 모든 憎愛의 情을 超越하여 서로들 용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끝나면 비로소 식탁에 돌아앉아, 붉은 葡萄酒잔을 들어 마시며 「예수는 다시 사러 나신다」 「인류에게 행복이, 있으라」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실로 復活祭에 있을 만한, 그들의 心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래서 부활제의 밤은 깊어간다."[57]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활절 풍습이다. 저자는 이 풍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교회의 핵심적인 의례인 부활절 묘사 이외에도,[58] 크리스마

---

56) 松花江人, 「復活祭의 밤 -哈爾賓왔다가 露西亞名節을 보고」, 『삼천리』 제12권 제6호, 1940.6.1. 따뜻한 논평과 함께 이 기사를 소개해 준 조은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7) 松花江人, 「復活祭의 밤」.

58) 러시아인의 부활절 풍습을 묘사한 글로는 다음의 글이 더 있다. 함경북도 주을온천 근처에 거주했던 백계 러시아 이주민들이 부활절을 지내는 모습을 묘사한 글로, 저자는 "부활제날(復活祭日)"의 "에끼조틱한 광경"이 "남구 노서아(南歐露西亞) 정조"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西洋人 別莊地帶 風景」, 『삼천리』 제6권 제9호,

스 모습을 전하는 기록도 있다. 안용순의 「북만순례기」라는 기행문은 만주 일대를 여행하며 건조한 문체로 현지인의 일상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하얼빈에서 인상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곳이 러시아인의 도시라는 것이고, 종교적 광경이 이를 대표한다. 다음은 그가 본 크리스마스 풍경이다.

> 오늘이 1월 9일인데 이곳은 요사이가 크리스마스인 모양이다. '추림(秋林)'이란 어지간히 큰 백화점도 그로 인해 3일 휴업이란 패가 나붙었다……합이빈역 구내에서 본 것인데, 1, 2등 대합실 한 모퉁이에 '로맨 캐도릭' 교도의 그리스도의 우상을 모신 것이 있다. 여러 사람이 기이한 듯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노인이 와서 촛불을 켜놓고 무릎을 굽혀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손에 접문(接吻)한다. 그 광경은 여하튼 백계(白系) 노인(露人)의 우상이 타국의 역내에까지 안치되었다는 것은 다소 이상한 감을 갖게 한다. 사실 합이빈의 노인의 존재는 경시할 수 없는 것인 모양이다.[59]

안용순이 구사한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 우선 정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잘못 표현하였다. 다른 저자의 글에서 "카도릭구교(加特力舊敎)"라는 명칭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교회 명칭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1월 9일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한 것은 정교회에서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지내기에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우상'의 손에 입맞춤[接吻]했다는 묘사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크리스마스 말구유 장식이나 십자고상(十字苦像)일 것이라 추측된다.

조선 작가들은 나라 잃은 처지의 백계 러시아인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묘사는 그들의 비참한 생활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으나, 종교 생활은 비참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 탓에 예외적이었다. 조선 작가들은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종교 생활이 이주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음을 알아채고 그 건축과 의례 생활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문학과 기행문은 건물 기록만 남아있는 하얼빈 이주민의 종교를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934.9.1.

59) 安容純, 「北滿巡旅記」, 『間島流浪 40年』, 조선일보사 출판국, 1989, 317.

3. 유대인의 삶과 종교

조선 작가들은 하얼빈의 다양한 종교 경관에서 백계 러시아인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문학에 표상하였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지 않는 중요한 이주민 집단이 유대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의 연구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는 작가의 작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만주에서 활동한 중국인 작가 줴칭(爵青)의 작품 「미스터 쓰빈싸이라(斯賓塞拉先生)」이다.[60] 하얼빈철로국(哈爾濱鐵路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줴칭은 하얼빈에 거주한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썼다.

소설의 주인공 쓰빈싸이라는 미국 씨티은행의 해외 주재원 신분으로 하얼빈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이다. 소설은 '나'가 쓰빈싸이라와 우연히 대화하면서 그의 생애를 알게 되는 내용이다. 쓰빈싸이라는 그리스에서 출생하였으나 17살 때 선조의 발상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난다. 그러나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추방당했고, 그 후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유대인구락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군으로 참전하였고, 1920년에 미국에서 유대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결혼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와 상하이를 거쳐 하얼빈으로 오게 된다. 그는 장차 상하이로 떠나려고 한다.

쓰빈싸이라는 자기 민족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다. 그가 보이는 극한의 방랑 이력, 온 세계를 누비며 어디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인생사는 유대인 역사의 압축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 아시아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20세기 초 하얼빈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새로이 활성화된 유대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주요 지역으로 손꼽혔다. 하얼빈이 여러 지배 세력 간에 놓인 일종의 정치적 중립

60) 줴칭(1917~1962)은 만주국에서 활동한 중국 작가이다. 원명은 류페이(劉佩), 1917년 창춘(長春)에서 태어났고 일본공학당을 거쳐 창춘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얼빈철로국(哈爾濱鐵路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작품집으로 『군상(群像)』(1938), 『구양가의 사람들(歐陽家的人們)』(1941), 『귀향(歸鄉)』(1943) 등이 있다. 하얼빈철로국 근무 시절 하얼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미스터 쓰빈싸이라(斯賓塞拉先生)」는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爵青, 『歸鄉』 (北京: 華夏出版社, 2011). 이 작품을 소개하고 내용 정리를 도와준 천춘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상태에 놓였을 때, 유대인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하얼빈 역사가 보여주듯 정치적 변화에 따라 유대인 커뮤니티는 소멸하게 된다. 상하이로 떠나는 쓰빈싸이라의 마지막 여정은, 이후 하얼빈의 운명을 예견한 것은 아니겠지만, 유대인 정주의 일시적인 성격을 상징한다.

V. 맺음말

하얼빈은 동북아시아에 건설된 유럽식 도시였고, 20세기 전반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와 사람이 공존하며 직접 교류한, 예외적인 다문화 상황이 조성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종교문화도 다양해서, 아시아인의 유교, 불교, 신도와 더불어 이주민의 정교회(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유대교, 가톨릭, 루터교, 이슬람교 등이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 하얼빈에 다원적 종교문화가 형성되기까지의 정치적 배경을 요약 정리한 후, 하얼빈에 존재한 각 종교 전통의 주요 건물과 이주공동체를 소개함으로써 다종교 상황의 경관을 그려 보였다. 동서 종교가 공존하고, 유럽식 성당과 교회 건물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얼빈의 종교 경관은 외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30년대, 40년대 만주를 열광적으로 시찰하였던 조선 지식인은 하얼빈의 종교문화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이 글에서는 당시 만주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기행문을 통해 하얼빈이 묘사된 방식을 분석하였다. 하얼빈 건설 때 근간이 되었고 이국적인 정서를 대표하는 정교회 성당은 조선 기행문이나 문학작품에서 단골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조금 더 밀착해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하거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의례 생활도 모습도 포착되었다. 조선인은 망국의 설움을 지니고 타지에서 곤궁하게 지내는 백계 러시아인에 주목하였다. 어려운 타지 생활 와중에도 성당을 짓고 전례를 지속하는 모습에서, 그들은 러시아 이주민의 삶에서 종교가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지하였다.

이 글은 하얼빈이라는 독특한 다종교 상황을 조망하기 위해 기록과 현재 건물로 남아있는 여러 종교 전통의 흔적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당시 조선 문인들이

하얼빈을 관찰하고 남긴 작품과 기행문에서 종교 경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1930, 40년대 하얼빈을 다룬 문학작품을 두루 다루도록 노력하였다. 이 시기 종교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작품의 구체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할 사항은 조선 문인 혹은 관광객이라는 관찰자의 위치이다. 그들이 산보객이 되어 근대도시 하얼빈을 활보하고 기록을 남긴 것은 중요한 특성이지만 기본적인 한계도 갖는다. 그들은 하얼빈의 관광코스에 등장하는 명소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관광객이 체험하는 하얼빈과 생활 공간 하얼빈은 다를 수밖에 없고, 줴칭이 표현했듯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공간의 종교문화도 존재한다.[61] 조선인 관람자의 시각은 주로 러시아 정교회, 유교, 불교 등에 머물렀고, 유치환이 우크라이나 사원을 언급한 것이 예외적일 정도이다. 조선 문인이 이주민의 고된 생활에 동질감을 느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에 눈길을 주었지만, 보이지 않는 종교문화들이 존재했다. 우리는 하얼빈의 종교 경관을 개관한 후 문학작품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인의 시야에 들어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유대교, 루터교, 아르메니아정교회, 이슬람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인 작가 줴칭이 유대인을 소재로 쓴 소설은 조선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보충해 준다.

20세기 전반 하얼빈은 러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건설되고, 다양한 부류의 유럽 이주민과 아시아인이 공존하며 동서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다종교 상황이 전개된 특수한 공간이었다. 짧은 시간 정치적 지배 주체의 교체와 공백이 갈마든 탓에 다종교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했고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적 외양의 도시 하얼빈이 1930, 40년대 조선인들에게 이국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음은 분명하고, 그 원천에는 다종교 상황도 포함된다. 이 글에서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지만, 하얼빈은 다종교사회의 한 사례로서 이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선 문인들이 감지했듯이, 이주민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서 주목받을 만하다.

주제어: 하얼빈, 다종교 상황, 이주민 종교, 문학과 종교, 러시아 정교회

61) 爵靑, 『歸鄕』, 107.

원고접수일: 2023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6일

참고문헌

Ben-Canaan, Dan. *Jewish Footprints in Harbin: Concise Historical Notes.* Harbin: Harbin Jewish Culture and Tourism Association, 2018.

Chernolutskaya, Elena. "Religious Communities in Harbin and Ethnic Identity of Russian Emigré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2000): 79-96.

Carter, James. "A Tale of Two Temples: Nation, Region, and Religious Architecture in Harbin, 1928-1998."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2000): 97-115.

Ratmanov, Pavel E., Lotysz, Slawomir, & Czajewski, Jerzy, "Polish Physicians in Harb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History of Medicine* 6-2 (2019): 70-80.

Tweed, Thomas A. *Crossing and Dwelling: A Theory of Relig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Lahusen, Thomas. "Dr. Fu Manchu in Harbin: Cinema and Moviegoers of the 1930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2000): 143-161.

Leon, Tony. "The Jews of Harbin." *Jewish Affairs* 64-3 (2009): 41-42.

강혜종. 「20세기 '국제도시'의 기억: 1920～30년대 조선인의 만주기행문 속 하얼빈」. 『중국학논총』 34 (2011): 97-199.

고병철. 『일제하 재만 한인의 종교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09.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고양: 역사비평사, 2004.

김정남.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도시성과 사회사적 맥락」. 『현대소설연구』 83 (2021): 189-221.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철권·백태경. 「식민도시의 공간형성과 Segregation에 관한 연구: 1898-1931년의 하얼빈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8-1 (2005): 147-162.

나이, 맬러리(Malory Nye). 『문화로 본 종교학』. 유기쁨 옮김. 서울: 논형, 2013.

노상래.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82 (2018): 273-303.

박종수. 『한국 다문화사회와 종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성해영·안연희. 「종교다원주의와 디아스포라: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전개와 디아스포라 개념의 유용성」. 『민족문화연구』 70 (2016): 155-181.

소재영 엮음. 『間島 流浪 40년: 중국, 시베리아 未公開 紀行文 23選』. 서울: 조선일보사 출판국, 1989.

유치환, 남승우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 서울: 국학자료원, 2008.

이미림.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61 (2019): 241-266.

이효석. 『이효석 전집』. 서울: 창미사, 2003.

爵　青. 『歸鄉』. 北京: 華夏出版社, 2011.

조은주. 「공동묘지(共同墓地)로의 산책: 심연수, 유치환의 시에 재현된 하얼빈 소재 외국인 공동묘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2014): 103-134.

_____.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2013): 99-135.

천춘화.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하얼빈의 이미지와 만주 인식」. 『문학사상』 411 (2007.1.): 181-203.

최봉룡. 「滿洲國의 宗敎政策에 對한 硏究: 國家宗敎와 國家理念의 變形을 中心으로」. 『숭실사학』 24 (2010): 257-304.

_____.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 신종교』. 파주: 태학사, 2009.

최삼룡·허경진 엮음. 『만주 기행문』. 파주: 보고사, 2010.

취샤오판(曲曉范).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박우 옮김. 과천: 진인진, 2016.

한석정.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Abstract

The Religious Landscape and Literary Representations of Harbin in the Early 20th Century

Bhang, Won-il (Soongsil Univ.)

Harbin, emerg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crucial hub in Russia's transcontinental railway network, transformed into a hub for profound East-West cultural exchange. The city took on a European-style identity, centered around the Orthodox Cathedral. In the 1920s, China assumed control, leading to the construction of Confucian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tailored to the local Chinese popul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chukuo state in 1932 ushered in Japanese rule over the region. Against a backdrop of dynamic political shifts, Harbin's demographic diversified through the settlement of immigrants from Russia, Eastern Europe, Central Asia, and East Asia. This amalgamation gave rise to a unique multi-religious social milieu, turning Harbin into a religious smorgasbord featuring Russian Orthodox, Catholic, Jewish, Armenian Orthodox, Ukrainian Orthodox, Lutheran, Islamic, Confucian, Buddhist, and other religious traditions. The visits of Korean intellectuals to Harbin during the 1930s and 40s found expression in literary works and travelogues, where the Orthodox Cathedral becomes a prominent thematic backdrop. These narrative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religious practices, such as liturgical ceremonies and seasonal observances. The ostensibly European appearance of Harbin played a pivotal role in sparking exotic imaginings among Korean intellectuals during this historical period, intricately connected to the city's diverse religious landscape.

Keywords: Harbin, Religious Diversity, Religions of Immigrant, Literature and Religion, Russian Orthodox Church